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미나스, 에르모게니스, 에브그라포스 순교자

루가 제 10주일

니콜라스 미라 대주교

제 1조, 조과복음 4

(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1조 부활찬양송 / 81, A 211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 니콜라스 찬양송 / 83, B 241

•성당 찬양송

•성탄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사도경 : 히브리 13:17~21 / 봉독서 630

•복음경 : 루가 13:10~17 / 129, B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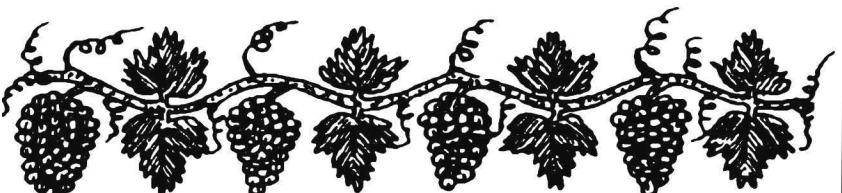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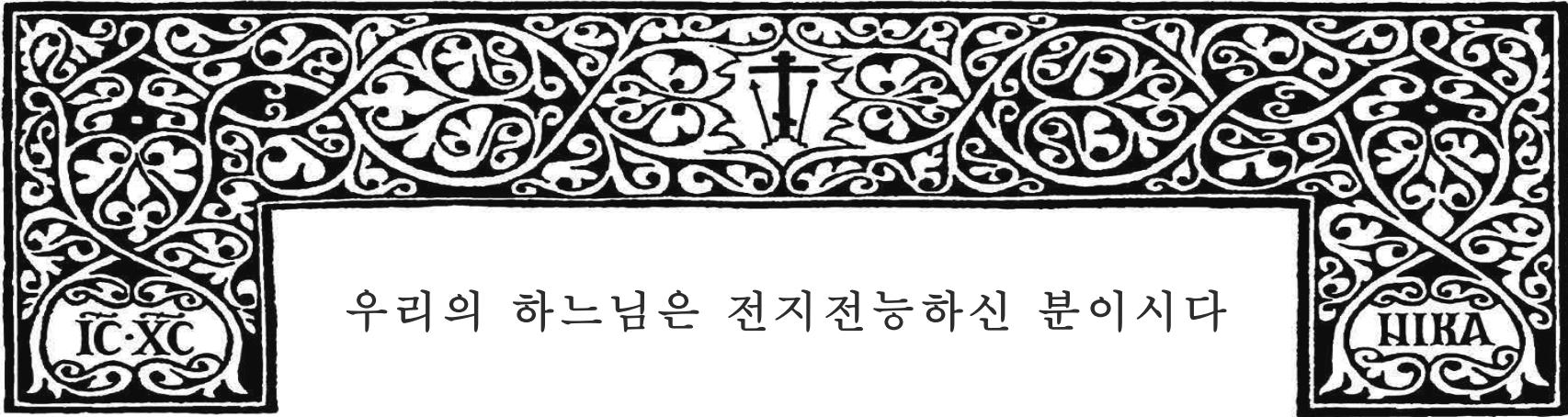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미나스, 에르모게니스, 에브그라포스 순교자

거룩한 순교자들의 고행은 뿐리 주위에 새로운 가지와 씨를 퍼트리는 나무를 닮았습니다. 한 명의 거룩한 순교자는 순교를 하면서 주위에 새로운 순교자들의 가지를 퍼트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순교 성인이 우리 교회에서 12월 10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미나스(4세기)와 함께 순교의 투쟁을 한 성 에르모게니스와 성 에브그라포스 순교자들입니다. 미나스 성인의 직업은 군인이었는데,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폭동이 동반된 혁명이 일어나자 진압을 위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내집니다. 미나스 성인은 좋은 태도와 훌륭한 말씀으로 혁명을 진압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이집트

지역에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라는 명을 내렸고, 나중에 에르모게니스는 미나스 성인을 잡으라는 명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미나스 성인을 잡아서 고문을 할 때 미나스 성인의 참을성을 보고 에르모게니스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같이 순교를 당할 때 미나스 성인의 협력자였던 에브그라포스도 함께 순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나무줄기와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쳐낼수록 새로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려 허리가 굽어져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시고는 가까이 불러 “여인아, 네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루가 13:10-13).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일에 온전한 몸으로 하느님께 찬양드릴 수 있기 를 바라신다. 특히 주일은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모든 죄를 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날이다. 우리의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주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아시고 마련해주신다. 오늘 이 여인도 주일에 회당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병을 고쳐 주신 것이다.

십 팔년간 하혈병을 앓던 한 여인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몰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았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마주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허리가 굽은 채 수년을 고생하던 여인도 주님께 직접 간청 드리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아시고 고쳐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세어두신 분이시다.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을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마태6:33)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빨리 가서 주님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부지런해야 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당에 일찍 와서 앞자리 앉아 주님을 가까이 보려는 노력, 성체를 받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히 준비하는 노력,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우리의 힘겹고 고달픈 삶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해야겠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6)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의 긴 설교를 요약하자면, 기도는 우리 삶에서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실천이어야 하며, 동시에 경건하고 공경하는 자세와 절대적이고 완전한 집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적합한 공손함과 흡

승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유익을 알아야하며, 이는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해 하느님이 주시는) 특정한 응답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참으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는 사람은 지상의 천사로 변모(變貌)합니다.

기도할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바라지 않으시며, 대신에 ‘아름다운 영혼에서 나오는 말’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중간에 매개자나 형식상의 절차, 격식, 또는 미리 정해진 시간의 약속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응변술이나 유창한 말투, 달변, 수사학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게 말한다 해도 그분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모든 시간이다 적절하며, 모든 장소가 다 좋습니다. 기도에 대한 장시간의 가르침은 불필요합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에 대한) 배움은 빠르고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 기도가 지속적이고, 우리와 다른 이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구하며, 동기가 순수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하느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모세와 사도 바울로의 기도가, 단지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응답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다니엘 대신부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12월 6일(일) 축일을 맞이하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모든 신자들과 성인의 이름을 받은 분들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7일(월) 축일을 맞이하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11일(금) 축일을 맞이하시는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어, 주님의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 밤 10시 기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자 분들은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건강에 유의해주시고,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더욱 자유롭게 성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매일 밤 10시에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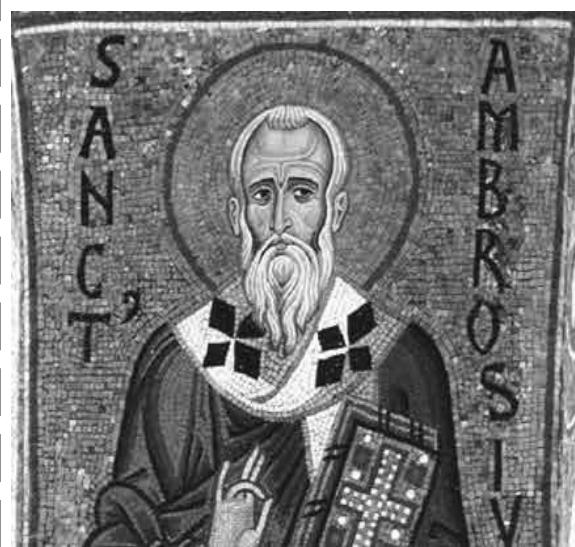
→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하지 못한 수련회 대신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12월 5(토)~6(일) 이틀간 진행하려고 계획한 주일학교 특별 프로그램이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취소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더 좋은 시기와 환경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성 니콜라스 축일과 성탄절 준비

지난 11월 29일

주일에 비대면 성찬예배가 끝난 후 신데즈 모스 회원들은 성당 축일과 성탄절을 준비하는 장식, 전등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간 예식

12월 7일(월)

암브로시오스 밀라노 주교

12월 12일(토)

스피리돈 주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